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전통의 예술대전이 펼쳐진다

64회 '호남예술제' 오늘 개막

음악·무용·국악·작문·미술·만화

미술 5월 13~15일 홈페이지 접수

강연군 화백 등 예술인 다수 배출

광주일보사가 195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호남 예술제는 전국 예술가들의 등용문이다. 올해 역시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연이 펼쳐진다. 64회를 맞은 호남예술제가 18일부터 5월28일까지 펼쳐진다.

먼저 지난 10일까지 참가신청이 진행된 음악·무용·국악 부문 경연이 호남신학대학교 음악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등에서 열린다. 41일간 진행되는 이번 경연은 음악(성악·기악·앙상블), 무용(클래식 발레·창작 발레·현대무용·한국 창작무용·재즈 등), 국악(기악·성악·가야금·타악 등), 미술(회화·한국화)·작문(산문·시), 만화·일러스트 부문으로 나뉜다.

미술·작문 부문 접수는 오는 5월1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호남예술제 홈페이지(art.kjmedia.co.kr)를 통해 접수한다. 다음 달 19일 조선이공대학교 3호관에서 진행되는 만화·캐릭터·일러스트 부문을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까지 광주매일리랜드, 우치동물원 등에서 미술·작문 경연이 진행된다.

'예술 꿈나무들의 잔치' 호남예술제는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창간 3년 후인 1955년 개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58만여 명이 호남예술제에서 기량을 펼쳤다.

호남예술제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



64회 호남예술제가 18일부터 5월28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최고상을 받은 광주송원초 학생들의 가야금병창.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김남윤 한예중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바이올린),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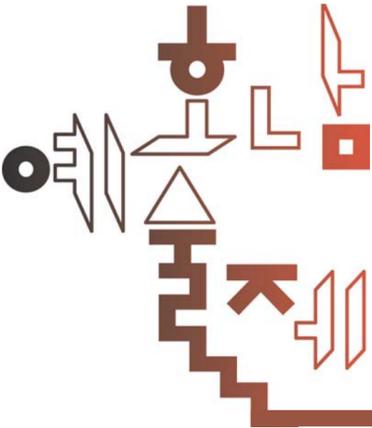
용), 강연군 화백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호남예술제를 거쳤다. 특히 의재 허백련, 오지호, 시인 김현승, 무용가 옥파일 등 유명 예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예술제의 위상을 높였다.

부문별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당일

날 공지하며 다음날 발행되는 광주일보 지면(문화면)에도 발표한다.

미취학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새싹 그리기 축제'도 오는 6월4~7일 그림을 접수받는다. 문의 062-220-054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내일 대한민국창극제 학술포럼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승익)은 창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적인 공연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2019 대한민국 창극제'의 성공 개최 지원 학술 포럼을 19일 신안비치호텔 아리랑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 포럼은 전남문화관광재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전남의 '남도문예르네상스' 비교우위자원 12개 중 하나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탄생한 창극의 대중화와 가치 확산을 위해 국내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선정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창극의 역사적 가치와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2부와 3부에서는 김세종 동국대학교 교수, 임영규 전남도 자문위원, 김홍승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등 국내 공연예술 전문가들이 창극의 역사·제작 현황, 대한민국 창극제 특성과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한편 이번 2019 대한민국 창극제는 전국의 창극단체를 대상으로 9월 중 전남 도내 공연장에서 전남의 설화, 인물 등을 소재로 한 초연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단체를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 /김미은 기자 mekim@

미디어아트 거장 하룬 파로키 회고전

28일까지 淸州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독일의 영화감독이자 미디어아트 거장인 하룬 파로키(1944-2014)의 대표작 47편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만난다.

ACC 시네마테크는 오는 28일까지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극장3과 블랙박스 1·2에서 '하룬 파로키 회고전'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하룬 파로키-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연계해 마련됐다.

하룬 파로키는 노동자의 삶과 전쟁, 기술문명을 탐구하는 100편 이상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작품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역할을 통해 이미지를 사유하고 실험하는 고고학적 접근을 보여준다. 파로키는 1966년부터 각본가, 배우, 프로듀서로 다른 영화감독들과 협업했고 잡지 '필름크리틱'의 편집자로 활동했다.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영국 테이트모던, 프랑스 퐁피두센터 등에서 그의 회고전이 열렸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특별전이 개최됐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루미에르 형제의 동명작품을 재해석한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1995)과 영화와 다큐멘터리, 실제 감시 카메라에 등장하는 교도소의 장면들로 구성된 '교도소 이미지'(2000), 1944년 연합군이 촬영한 항공 영상



'세계의 이미지와 전쟁의 각인'(1988)

에서 발견된 아우슈비츠의 모습을 통해 이미지와 폭력의 관계를 그려낸 '세계의 이미지와 전쟁의 각인'(1988) 등이 있다. 베를린 맥주 베를리너킨들'의 광고를 다룬 '맥주는 베를리너 킨들'(1966)과 작고 전 최경작인 '자우어부르흐 허튼 아키텍츠'(2013) 등도 공개된다.

다음 달 ACC 시네마테크는 1989년 시작된 영상 노동운동 집단인 '노동자뉴스제작단' 특집과 제주도의 비경을 담은 '오버 데어' 상영회와 감독과 대화를 연다. 이어 '어린이 필름제작워크숍'(8월), '오버하우젠 국제영화제 월드투어'(9월), '한국 나쁜영화 100년'(11월) 등이 진행된다. 관람료 무료.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

아름드리 자리한 친숙한 소나무들

이명연 전, 30일까지 LH 휴광갤러리

'화폭에 옮긴 소나무의 향기' 한국화가 이명연 작가가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 본부 1층 LH휴광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솔바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자신의 삶에 위로를 전해 준 우직한 소나무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내걸었다.

자유자재, 다양한 모습으로 휘어진 소나무들은 바닷가에, 어느 이름 모를 마을에, 숲속에서 있는 것들로 사시사철 푸른 빛을 담고 있다. 화선지에 자연스럽게 스미는 채색화의 매력을 전하며 울퉁

불퉁한 소나무 집짐이 생생하고 갈색 몸통과 어우러진 푸른 소나무는 강직한 느낌을 전한다.

소나무가 전면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고기잡는 어들, 용기종기 모여있는 누군가의 집, 봄을 알리는 화사한 꽃, 어떤 이가 걸여갔을 징검다리 등도 배경으로 감춰져 있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작가는 전남도미술대전·광주시미술대전·한국예술대상전·대한민국한국화대전 심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광주미술협회 이사와 송림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작가는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남구정소년수련관·서구문화센터 등에 출강하고 있다. 주말 휴관. 문의 062-360-3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장지에 채색'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일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팔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팔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을 소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